

시민사회단체 연대 불복종운동...공동투쟁기구 곧 출범

새정치 국정화 저지 전면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맞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사흘째 국회 로비터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고 4일 선언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야당·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호헌선언을 철회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것을 모델로 삼아 현 정부에 맞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6월항쟁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법국민운동본부'를 재현하는 공동투쟁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입장 발표에 맞서 이날 당 대표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저지할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 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헌법소원을 비롯해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

문 "불복종운동 나서달라" 호소

헌법소원 등 법적 저지수단 강구

당내 일부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정당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고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기구를 출범시킨다. 당이 계속 전면전에 나서면 자칫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학계와 시민단체가 투쟁을 주도하고 새정치연합은 지원 역할과 원내투쟁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일한다. 공동투쟁기구는 YMCA와 흥사단 등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이 계속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 벌써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정부의 고시강행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사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저희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농성이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파행하면 할수록 정부는 속으로 손뼉을 치기 때문에 시한부로 절도 있게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최몽룡·신형식 교수 포함

김정배 위원장 "집필진 공개 여부는 더 논의한 뒤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담할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은 4일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집필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필진은 학계 원로·중진 또는 현장교사를 망라해 수준 높은 집필진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대표 집필진은 시대사별 원로 교수 약 6명으로 구성되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최 명예교수는 고고학(상고사), 신 명예교수는 고대사 부분을 대표한다.

고려·조선·근대·현대사 대표 집필진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나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집필진 규모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약 21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약 15명 등 모두 36명 안팎으로 선정됐다. 집필진은 오는 20일 구성이 완료되며 집필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집필이 마쳐진 교과서는 20여명 내외로 구성된 2개 팀의 자체 검토 작업을 거친다. 이와 함께, 역사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및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 등 전문가의 책임 감수도 거쳐기로 했다. 이 같이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는 오는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집필진 공개 여부와 관련, "집필진 공개는 집필 시작 이후에도 공개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집필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개 시기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12월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텔라워리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월) 799,000원에 관다!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79,000원

벳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 499,000원 ~ 7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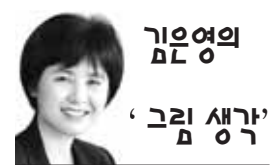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절로 마음 모아 기도하고 싶어지는 시절



(134) 기원



최종태 작 '관세음보살상'

지난 주말 친구 따라 교회 바자회에 다녀왔다. 팔죽과 수제 돈가스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찜빵과 파배기튀김은 후식, 두 손엔 김치 등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들고 나서니 잔치 집 마실 다녀온 듯 마냥 즐거웠다. 내 마음 속 종교는 따로 있지만, 신앙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언제부터가 교회 범당 성당 그 어느 곳엘 기도 똑같이 마음이 편안하다. 절로 마음모아 기도 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 가는 길에 들렀던 성북동 길상사. 기원의 간절함으로 들었던 시절이지만 한국 현대사가 자랑하는 천재 시인 백석(1912~1996)과 그가 자아 불렀던 한 여인의 순정하고도 거룩한 사랑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어서인지 애뜻함이 일었다. 시인을 사랑했던 기생 김영한(1916~1999)은 한국전쟁으로 그와 영영 이별하게 되면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려 큰돈을 벌지만 법정스님에게 오로지 '길상화'라는 범명을 받고 전 재산인 길상사 터를 시주한다. "천억 재산이 그 사람의 한줄 시만도 못하다"고 했던 김영한은 시인을 기리는 '백석문학상'을 제정하기 위한 기금도 기부했다.

길상사의 사연과 함께 눈길에 머무는 곳은 최종태 조각가(1932~)의 '관세음보살상'(2000년 작)이다. 관세음보살상은 여는 사찰의 불교 조각과는 다른 양상이다. 천주교신자인 원로 조각가가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을 만나

성모상 같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상 같기도 한 조각을 세워 종교 너머 보편적 구도의 마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 표상에 한국적인 정서를 더한 조형을 만들어낸 조각가는 관세음보살상에 단순하면서도 슬픔과 기쁨, 아니 그마저도 초월한 영성을 담아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에 이끌려 기도하면서 여러 상념에 젖어본다. 가장 세속적이었던 요정이 가장 신성한 사찰로 거듭나는 반전을 기획했던 그 여인이 주인공이었던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가난한 내가/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나타샤를 사랑은 하고/눈은 폭폭 날리고/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나와 나타샤는..."(백석 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중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